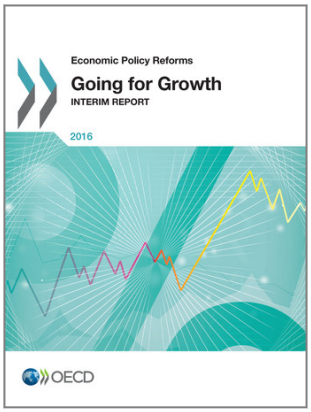
OECD *Multilingual Summaries*
Economic Policy Reforms 2016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Summary in Korean



Read the full book on: 10.1787/growth-2016-en

2016 년 경제정책개혁
구조개혁평가 중간보고서

국어 개요

신흥국 경제의 부진, 세계무역의 둔화, 투자의 만성적 약세로 인한 선진국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글로벌 성장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기적으로 어두운 글로벌 성장전망은 (적어도 선진국 경제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2000 년대 초반의 수준으로 환원되는 광범위한 하향세의 우려와 경기회복의 징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배경으로 부상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에 신흥국 경제에서 관찰된 성장둔화는 대다수의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신흥국에서 추가적으로 좁힐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게 만들었다. 수요지원정책과 결합된 구조개혁의 경우는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가능하게 향상시키도록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평등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구조개혁평가(Going for Growth)」는 정부의 정책개혁이 시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그 목적에 가장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고안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종합적 평가를 제공한다. 「구조개혁평가」 프레임워크는 G20 국가들이 2014 년에 약속한 G20 의 전체평균 국내총생산(GDP)을 2% 높이고 관련된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노력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본 중간보고서는 성장과 관련되어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 OECD 국가들이 당면한 주된 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 여년 동안에 도입한 구조적 정책개혁의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제 1 장). 2015 년도「구조개혁평가」 발행호에서 제안되었던 국가별 우선순위의 추진현황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연결재정, 경상계정 불균형 개선, 소득불평등 감소 등에 중점을 두면서 포용성과 미시경제적 균형재조정에 대한 성장촉진적 개혁이 가진 잠재적 함의도 역시 논의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만성적인 수요 약세의 배경에서 이행되는 개혁의 영향에 관련된 이슈와 쟁점 및 이러한 개혁의 지원에 있어서 미시경제적 정책의 가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각종 사례들도 검토하고 있다(제 2 장).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GDP 에서 생성된 소득과 가구에 분배된 소득 사이의 연계성을 평가한다(제 3 장). 특히 전체 OECD 국가에서 GDP 성장이 가구부문에 전달되는 주된 채널이 지난 20 여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정책개혁에서 나타난 문제점

- 대다수 시민의 복지를 지속가능하도록 향상시키는 개혁전략을 고안하는 데에 있어서 전세계의 정부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적나라게 들어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기 훨씬 이전부터 상존해 온 심층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생산성 향상의 둔화는 동일한 업종 내의 기업들 사이에서 생산성 향상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특히 프론티어 기업(대표적으로 지속적 생산성 향상을 유지하는 다국적 기업)과 생산성 프론티어 안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다른 기업 사이에서 그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기업가적 정신을 억누르고 지식과 기술의 전파를 활용하려는 기업역량을 제한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의 우선순위이다.
-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다수의 국가, 특히 장기실업률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는 남부유럽 및 중부유럽에서 계속해서 주된 개혁의 대상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시장이탈 비율(예, 미국), 여성의 낮은 노동참여율(한국과 일본) 또는 비공식 고용의 높은 비중(대부분의 신흥국가) 등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우선순위가 된다.

2015 년 진척 상황

- 주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일부 진척이 있었지만, 2013-2014 년에 나타났던 개혁 속도의 둔화는, 비록 고려 중인 개혁 조치들이 있으나 전격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2015 년에도 계속되었다.

- 개혁의 속도는 국가별 및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 일반적으로 남유럽의 국가들(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개혁 속도가 북유럽의 국가들보다 빠른 상태가 계속되었다. 유럽 이외에서 「구조개혁평가」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의 조치들을 채택한 국가들에는 선진국 중에는 일본과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이 있다.
-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향상시키고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방안들이 시행되었지만, 혁신 정책, 공공부문 효율성, 제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의 분야에서는 시행된 방안들이 거의 없었다.

- 소득불평등이 특히 우려사안인 국가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채택된 대다수의 방안들은 소득분포를 좁히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최근의 조치들은 큰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외부 불균형을 낮추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약세의 상황에서 개혁의 수행

글로벌 경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고용과 생산성 향상의 촉진과 더불어 개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례로서 잘 나타나고 있다.

-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를 차치하더라도, 여기에는 억압된(pent-up) 수요가 있는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애의 철폐, 의료 및 연금 분야에서 급여자격의 개혁 및 지리적 이동성과 일자리 이동성을 촉진시키는 주택정책과 구직알선 프로그램의 개혁 등이 포함된다.
- 구조개혁에 따른 단기적 일시퇴직(payoff)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가구와 기업으로의 대출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금융부문에 잔존하는 역기능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유로통화권 내에서는 국가들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시행되는 개혁이 증가했으며, 이는 만성적인 저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인한 실질금리가 잠재적으로 상승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에서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에 따른 전환 비용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예산에서 그 여지가 매우 제한된 국가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저비용의 조치들에 중점을 둬야 하며, 다른 조치들은 고용과 성장에 되도록이면 친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GDP 성장과 총 가구소득

- 1990 년대 중반에서 2013 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실질 GDP 가 실질 가구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 이러한 간극은 부분적으로는 정책견인이 거의 없었다는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에,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와 같은 원자재 수출국들을 제외하면, 소비가격(부가세가 포함됨)은 생산가격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 GDP 에서 차지하는 가구소득의 비중(명목 GDP 에 대비한 가구의 명목 가처분소득)은 해당 기간 동안 및 전체평균 OECD 국가의 측면에서는 안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안정세는 국가 간에서 나타나는 수준과 변화의 이질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가구소득의 비중은 오스트리아와 한국에서는 큰 폭의 떨어졌으며, 슬로바키아와 핀란드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 GDP 가구소득 비중의 변화내용은 GDP 의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차소득(순 정부 이전) 비중의 세부내역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대다수의 국가는 GDP 에서 노동소득 및 가구로 유입되는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시적으로 하락함을 경험했으며, 이는 기업수익이 가구부문으로 재분배되기보다는 기업부문에서 이를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하지만, 경제의 가구/기업/정부 부문들 사이의 소득분배 변화라는 한 측면과 다수의 OECD 국가들이 경험하는 가구 부문 내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측면 사이에서 분명한 연계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6), *Economic Policy Reforms 2016: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OECD Publishing.
doi: 10.1787/growth-2016-en